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⑤	5	④
6	⑤	7	⑤	8	③	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①	14	②	15	④
16	①	17	①	18	②	19	②	20	③
21	②	22	③	23	④	24	②	25	③
26	①	27	④	28	⑤	29	④	30	④
31	④	32	⑤	33	①	34	②		

해설

[1~4] (현대시) (가) 김남조, 「설목(雪木)」, (나) 김광섭, 「겨울날」

(가) 김남조, 「설목(雪木)」

이 시는 이별한 화자가 한자리에서 추위를 견디며 허연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가꾸어 온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표상하고 있다.

(나) 김광섭, 「겨울날」

이 시는 겨울날 힘든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가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겨울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드러내고 있다.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 '총총히', '땀땀', '어정어정', '왈락' 등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의태어를 사용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절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2.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된 화자의 황망함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가을에 이별한 상황에 주목해 보면, '시냇물마저 여위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계절의 특성과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떠난 후에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내 옆에 남아줄이 더욱 백 배는/고맙고 복되었을 것'이라고 돌이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하지 않기를 바랐던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이별의 슬픔을 승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을 달고도 위로 뻗는 모습으로 '설목'을 형상화한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불씨 한 줄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는 것은 화자

내면의 절대적 사랑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⑤은 화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하게 된 것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게 될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5~10] (사회) 송덕수, 「법률 행위의 해석」

이 글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법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법률 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있고, 2문단에서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3문단 이후에서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한 부분은 없다. ③ 법률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에 적용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 부분은 없다. ④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없다. ⑤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없다.

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3문단에서 자연적 해석을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시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했고, 오프시 무해의 원칙이 자연적 해석에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오프시 무해의 원칙이 표시자의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행위에는 등작이나 집목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과 효유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4문단에서 표시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 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표시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시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시자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② 3문단에서 자연적 해석을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시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④ 4문단에서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⑤ 4문단에서 표시 수령자가 표시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시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시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5문단에서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이라고 한 내용과, 6문단에서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라 보았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을이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② 갑과 을이 일정 기간 후에 서로 다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③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구를 한 사람은 갑이다. ④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일정 기간 복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1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⑥의 문맥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이다.

[오답풀이] ①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② '(밤을 목적으로 하여) 자지 않고 지내다.'의 의미이다. ③ '눈, 신경, 두뇌 따위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드러나게 좋아하다.'의 의미이다.

[11~15] (교전산문 복합) (가) 일연, 「선술 환생」, (나) 작자 미상, 「설총전」

(가) 일연, 「선술 환생」

선한 행위를 하면 극락에 가고, 악한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가)의 설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지옥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이 설화를 통해 불교가 생형했던 시기에 지옥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 작자 미상, 「설총전」

(나)는 설총의 무용담을 엮어 놓은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여러 차례 시련을 겪는 플롯을 제시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영웅적인 활약을 제시하고 있다. 설총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산중에 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봉황이 나타나 환생초를 물고 와 설총을 소생시키고 나무 열매를 물어도 주며 밤에는 날개로 감싸 키운다. 그러던 중 봉황이 사라지고, 설총은 천도를 도적질했다는 저승의 판단에 의해 저승으로 불참하 와 열라대왕에게 문초를 당한다. 설총은 열라대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풀려나 이승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여러 고초를 겪는다. 주인공이 겪는 시련을 다양한 플롯을 통해 제시한 점은 이 작품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설화와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망덕사, 저승, 무덤, 여인의 집 등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가)는 이들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저승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설화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염라대왕이 ~분구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선율이 불경을 완성시킨 후의 경과를 제시하여 불경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제왕이 물러가기를 빌었다는 것은 소재인 불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준다. ③ (가)에서 선율은 염라대왕이나 여인과 대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12.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저승에서 한 여인이 선율에게 참기름과 베를 불경을 완성하는 데 써 달라고 시주를 한다. 선율은 무덤에서 나와 여인의 집에 가서 참기름과 베를 찾아 여인의 바람대로 명복을 빌어 준다. 그러자 여인의 혼이 와서 고뇌에서 벗어났다며 선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를 당시 사람들이 듣고 모두 놀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율이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음을 나타낸다. 여인이 시주를 하여 불경 완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선율은 다른 승려의 도움으로 무덤에서 나왔다. ② 선율은 여인에게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다. ③ 무덤에서 나온 선율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 말했다. ④ 선율은 염라대왕에게 저승에서 불경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13. [출제의도] 서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은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나 선율의 육신이 무덤에 있게 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참기름과 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참기름과 베를 선율에게 시주하여 바람을 이루고자 한 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③ '왕명을 어이하리오.'라는 서술자의 말은 선율이 저승으로 불잡혀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넘을수록 산이 있고 건널수록 거센 풍량이 있다는 것은 선율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낸다. ⑤ 선율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는 것은 선율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1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염라대왕은 선율에게 세상에 머물던 고승으로 지낸 터라고 말하고 있다. 선율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염라대왕은 선율에게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③ 선율은 이승을 떠나면서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만 언제 불고.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④ 선율은 염라대왕에게 입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⑤ 상계를 모시던 선녀는 선율과 더불어 글을

지어 화답하였다. 이 죄로 선녀는 풍도에서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15.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염라대왕이 불경을 완성하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불경 완성의 당위성 때문에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서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선율이 자신의 결백함을 염라대왕에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이 선율을 문초한 것은 선율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초한 것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염라대왕은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주어 이승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는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보여 준다. ② 이십 전 여야는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한 죄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이는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준다. ③ (가)에서 선율은 이승으로 돌아오기 전 저승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시한 것은 저승 체험에 구성성을 더한다. 그리고 (나)에서 선율은 염라대왕, 즉 저승에 들어가 이십 전 여야에 대해 저승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도 저승 체험에 구성성을 더해 준다. ⑤ (가)에서 여인은 부모가 누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그리고 (나)에서 선율은 천도를 맞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여인이나 선율 모두 도적질과 관련하여 저승으로 불잡혀 온 것이다. 이를 통해 도적질을 하면 저승에 불잡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도적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21] (주제통합) (가) 하종호, '서구 철학의 인식론', (나) 김중석, '동양 철학의 인식론'

(가) 하종호, '서구 철학의 인식론'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파악한다. 인식 주체인 S가 명제 P를 안다는 것은 P가 실제로 참이고, S가 P를 믿고 있고, S가 P라는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케티어는 전통적 인식론에서 분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케티어가 반론을 제기한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의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외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김중석, '동양 철학의 인식론'

동양 철학의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론을 든다. 주자가 제시한 격물론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맑이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 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당초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을 '물이 격한' 것이라고 수정하였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이 탐구한 것에 따라 이른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리의 작용이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케티어는 이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 경우라도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케티어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을 갖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오답풀이] ② 케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히 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③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실제 교실의 분필 개수가 13개이어야 하고, 인식 주체 S가 교실의 분필 개수가 13개임을 믿고, 그것을 믿게 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지니고 있어야만 S가 명제 P가 참임을 안다고 할 수 있다.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한 것으로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보기>에 의하면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말한 것에 대해 퇴계는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퇴계가 만년에 물격을 '물이 격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① 만년의 퇴계는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③ 주자가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또한 퇴계는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퇴계의 만년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퇴계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고 본 초기의 입장을 반복하고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고 보았다. ⑤ 퇴계가 만년에 리의 작용의 미묘함을 말하자는 했지만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1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은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 입장에서 ㉡에 대한 '내 믿음'은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 입장에서 ㉡은 지식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의 입장에서 ㉡의 '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로부터 도출된 이유나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객관적 증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또한 ㉡에서 '내 믿음'이 정당화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나)의 필자가 퇴계가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한 것을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앞이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는 전통적 인식론에 문제를 제기한 게타어를 다루고 있고, (나)는 물결에 대해 입장의 변화를 보인 퇴계를 다루고 있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제공’이다. ‘제기’의 사전적 의미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이다.

**[22~25] (교정시가 복합)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입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고,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임을 이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기 때문에 우리 애정 시조들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唐詩)나 일본의 와카[和歌] 등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다)의 달은 옥적 소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천수 만환’이라는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에서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빚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을 위한 화자의 정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돌 쓰자 빙 썩나니’를 통해 (가)의 달이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이며, 화자와 임이 헤어지는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달은 화자가 고향을 떠난 장소인 ‘객창’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고 있다. ④ ‘내 목을 버혀 내어 더 들을 밀고고저’를 통해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며, ‘고은 님 개신 고디 가 비취어나 보리라’를 통해 떨어져 있는 입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마)의 화자는 달에게 ‘우리 님이 안것더나 누엇더나’라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으며, 달을 임의 소식을 알려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관용적 표현을 파악한다.**

㉔는 (가)의 ‘지국충 소리’, (나)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다)의 ‘옥적(玉笛) 소리’ 등이 해당한다. ㉕는 (다)의 ‘잠 못 드러 흐노라’가 해당한다. ㉖는 (다)의 ‘천수 만환’, ‘천리’, (라)의 ‘구만리’ 등이 해당한다. ㉗는 (마)의 ‘꽃 갖흔 우리 님’이 해당한다. 하지만 (가)~(마)에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4.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나)는 ‘뭇논 달’과 ‘지논 달’에서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달이 떠서 절 때까지의 시간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에 ‘달’이라는 시어는 반복되나 연쇄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에는 반복과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와 (다)에서 화자의 시선이 각각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거나,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와 (다)에서 화자가 고통을 견디고 추측할 여지는 있으나, 제회를 확인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의 경우 마지막 구절이 빠진 채 ‘지논 달만’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것은 시조마다 곡을 붙여 부르는 시조창을 위한 가장의 편지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의 ‘떨어도 다시 오네’는 입과 이별한 여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비쳐드는 달빛을 아무리 떨쳐 내려고 해도 떨쳐 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지만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보기>의 상황은 여인의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이 글의 (가)처럼 이별하는 순간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가련하다’는 달이라는 대상을 접하고 화자에게 일어난 정서이다. ④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 글의 (라)와 (마)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⑤ ‘달빛 좇아’와 ‘임을 비취보리라’는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두 사람이 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26~29] (현대소설) 은희경, 「새의 선물」**

이 작품은 열두 살 소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진희(나)’는 어린 아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며, 자신이 간파한 어른들의 비밀을 서슴없이 들추어 보여 준다.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 당돌하고 영악한 소녀 ‘진희’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한 근원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아껴 주는 외할머니와 조금은 철이 없는 이모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희’는 세상이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은 한 소녀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나’가 편지의 내용을 간추려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B]는 [A]와 달리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편지를 쓴 이모의 가식적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A]는 그렇지 않다. ③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이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 가는 방식은 [A]와 [B]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추려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B]도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모는 편지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자신을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형렬의 사진과 관련하여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모의 비밀’을 ‘햇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샘’이라고 한 것은 ‘나’가 이모의 비밀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른과의 비밀 공유를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보기>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빛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의 아이답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이해한다.**

‘나’는 ‘바라보는 나’를 숨기고 ‘보여지는 나’만을 남들에게 보여 주며 살고 있다. 이처럼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이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이 ‘위선’이 아니라 ‘작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나’는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30~34] (기술) 유희경 외, 「다중 접속 기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 접속 기술 중 보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은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송신자는 송신하려는 정보에 확산 코드를 결합하여 송신하고, 수신자는 수신된 신호를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원래의 정보로 복원한다. 한편 24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은 주파수 도약 확산(FHSS)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페어링된 블루투스 기기들이 확산 패턴에 따라 몇 개의 채널을 선택하여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FHSS)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페어링’이 되어야 한다.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2문단에서 CDMA 방식에서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 보내는 정보만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일정한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 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2400MHz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블루투스 통신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고 하였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깃값이 0, 1, 1, 0일 때, 첫 번째 시행에서는 천이 레지스터 IV의 초깃값인 0이 출력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1이, 세 번째 시행에서는 1이 출력된다. 따라서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0, 1, 1, 0, 1, 0, 1, .....과 같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송신하려는 m자리의 정보를 n자리의 확산 코드로 XOR 연산을 하면 m자리의 정보의 각 자리수를 n자리의 확산 코드로 XOR 연산하게 되므로 m×n자리의 확산된 신호가 된다. ② [A]에서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XOR 연산을 수행하여 나온 신호는 확산 코드와 같은 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확산 코드가 4자리이면 수신된 신호는 4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⑤ 천이 레지스터 III과 IV의 초깃값이 각각 0이라면 첫 번째 시행 후 천이 레지스터 I은 0과 0을

XOR 연산하여 0으로 채워진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 a.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frac{1}{1600}$  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없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b. 4문단에서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이 중 몇 개의 채널을 선택하는 확산 패턴에 따라 이동한다고 하였다.
- c. 5문단에서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한다면 각각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 d. 기기 1과 기기 2는 서로 다른 확산 패턴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CDMA 방식에서 확산 코드는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데 사용된다.

**[오답풀이]** ②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기기들 간에 페어링이 이루어져야 기기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③ ㉠과 ㉡ 모두 XOR 연산에 필요한 초깃값을 만들지 않는다. ④ ㉠과 ㉡ 모두 송신하려는 정보의 각 자릿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⑤ 검색 신호를 송신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하는 것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구별해 내는 데 ㉡이 사용되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3문단에서 블루투스 기기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24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면 다른 기기들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하여 1초에 1600번 주파수를 이동하면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블루투스 통신에서 2402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채널을 생성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확산 패턴에 따라 주파수를 1초당 1600번 이동하며 통신하는 것은 아니다. ④ 블루투스 통신에서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확산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값들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확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주파수를 1초당 1600번 이동하며 통신하는 것은 아니다. ⑤ 블루투스 기기들이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페어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산 패턴에 따라 주파수를 1초당 1600번 이동하며 통신하는 것은 아니다.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③	37	⑤	38	④	39	①
40	④	41	③	42	③	43	②	44	③
45	②								

**35.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발표에서 하백원이 자승차를 개량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에서 자승차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물을 스스로 끌어 올리는 수차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발표에서 자승차가 당시에 실용화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자승차가 물의 힘만 사용하여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에서 자승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 과학관 누리집에 방문하면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④ 발표에서 조선 시대에 농민들에게 수차 이용이 고된 노동이었음을 언급하며, 하백원이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승차를 설계하려고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사진 1'은 자승차의 모형이 담긴 것이다. 발표자는 '사진 1'을 활용하여 발표 대상인 자승차가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발표에 자승차의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그림'은 수차를 이용하는 농민의 모습이 담긴 풍속화이다. 발표자는 화제인 자승차라는 수차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② '설계도'는 자승차의 부품들이 그려진 것이다. 발표자는 발표 시간에 대해 언급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부품의 설계도 중 몇 장을 선택해 보여 주는 방식으로 '설계도'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④ '동영상'은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다. 발표자는 청중이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던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자승차가 자동차의 톱니바퀴와 유사한 과학적 원리가 사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자승차에 시대를 뛰어넘은 과학적 발상이 적용되었다는 우수성을 알려 주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발표를 통해 '학생 2'는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잘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고 했으며, '학생 3'은 조선 시대에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차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했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3'은 현대 기술에서 자승차와 유사한 원리가 사용된 경우가 더 있는지를 궁금해 하면서 이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 '학생 3'이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38.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에서 '홍철'은 책의 필자가 책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는 교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에서 '홍철'이 책에 드러난 글쓰기 형식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홍철'은 책의 수준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책의 목차를 살펴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이는 '홍철'이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책의 내용 수준을 가능하고자 한 것이다. ② ㉡에서 '윤주'는 이 책이 사고 경향을 7가지로 나눠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한 뒤 일주일 간 책을 읽으려고 계획하였음을 밝혔다. '윤주'는 책을 읽기 전에 책의 구성을 고려하여 책 읽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39. [출제의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이해한다.**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이조 등을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동작 등을 말한다. [A]에서 '홍철'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책까지 찾아 읽었다는 '윤주'를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였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가)에서 '지민'은 책의 서문에서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한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정박 효과는 비단 소비의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첫인상 판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에서는 첫인상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② (가)에서 '홍철'은 책의 내용 중 우주 왕복선 켈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였다. (나)에서는 켈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확신의 뒷에 빠지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③ (나)에서는 '담정녀'라는 신조어를 예로 들어 확신의 뒷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가)에서는 신조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정박 효과와 확신의 뒷에 대해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다.

**42. [출제의도] 글쓰기에서 고려한 작문 맥락을 파악한다.**

(가)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작문의 주된 목적이고, (나)는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는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은 벤치 정비, 공원 컴퓨터 내 휴게 시설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필자인 학생이 예상 독자인 시장님과 관계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격식에 맞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가)의 작문 매체가 인쇄 매체인 교지임을 고려할 때, 교지는 필자와 독자 간의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항목별로 소재목을 달아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글에 반영할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가)의 'III-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에서는 최근 ○○숲 공원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들의 대부분이 생태 탐방을 위해 공원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나)의 2문단에서는 외부 방문객들의 주된 방문 목적을 언급하며, 이들이 공원 내 휴게 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에서 외부 방문객이 휴게 시설의 부족을 ○○숲 공원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III-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에서는 최근 ○○숲 공원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10%p 감소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나)의 1문단에서 ○○숲 공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III-2-가'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조사 내용에서는 지역 주민의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공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나)의 4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III-2-나'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조사 내용에서는 ○○숲 공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

과,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원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나)의 2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III’에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상위 항목인 ‘2. ○○숲 공원에 대한 인식’의 하위 항목으로 ‘가. ○○숲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나.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서 (가)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I’에서 조사의 목적을 ○○숲 공원 이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② ‘II’에 조사 계획을 제시하면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④ ‘III-2-나’에서 ○○숲 공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각 항목에 응답한 주민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원그래프를 사용한 것은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보고서에서 그래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⑤ 현재 보고서에는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는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해 제시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오답풀이]** ④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부분은 없다. 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한 부분은 없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③	38	③	39	①
40	③	41	⑤	42	④	43	④	44	③
45	⑤								

**35. [출제의도] 형용사 형성 파생법을 이해한다.**

‘새롭게’는 어근 ‘새’ 뒤에 접미사 ‘-롭다’가 붙어 형성된 말 ‘새롭다’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시퍼런’은 어근 ‘피렇’ 앞에 접두사 ‘시-’가 붙어 형성된 말 ‘시퍼렇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복된’은 어근 ‘복’ 뒤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형성된 말 ‘복되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정답게’는 어근 ‘정’ 뒤에 접미사 ‘-답다’가 붙어 형성된 말 ‘정답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사랑스러운’은 어근 ‘사랑’ 뒤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 형성된 ‘사랑스럽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한다.**

㉠에서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 외에는 ㉡에 다른 안긴문장이 없으므로, ㉠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범이 어서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에서 ‘우유를 마신’은 ‘아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의 안긴문장 ‘범이 어서 오기’ 속에는 ‘오기’를 수식하는 부사어 ‘어서’가 있다. ⑤ ㉤의 안긴문장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는 주어 ‘그가’가 드러나 있고,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에는 주어 생략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니르산’을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때 높임의 대상은 수달이 아니라 태자이다.

**[오답풀이]**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금으로’와 ‘양으로’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중세 국어에서 앞 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로’로, 양성 모음일 때는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으로’로 달리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뽕’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ㅃ’과 같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太子’이 ‘태자’로 풀이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 ‘太子’에 관형격 조사로 ‘사’이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거죽말’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체언 ‘거죽말’에 조사 ‘을’이 결합할 때 앞말의 받침이 뒤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방식인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이해한다.**

‘별내[별래]’에서는 초성 위치에 있는 ‘ㄴ’이 ‘ㄹ’의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나)를 고려할 때, ‘별내[별래]’의 로마자 표기는 ‘Byeollae’이다.

**[오답풀이]** ① ‘대관령[대궐령]’의 로마자 표기는 ‘Daegwallyeong’이다. ② ‘백마[백마]’에서는 초성 위치가 아닌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삼목도[삼모도]’에서는 두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물날리[물랄리]’의 로마자 표기는 ‘mullalli’이다.

**39. [출제의도] 동화의 유형을 이해한다.**

‘곤란[글:란]’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ㄴ’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입문[임문]’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ㅃ’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ㅃ’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가)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몇몇 특정 핵심 어구의 앞에 기호를 붙여 열거하고 있다. 해당 기호를 통해 정보 수용자는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나)는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특징이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에서 진행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진행자와 기자는 가문에 따른 피해의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자와 기자는 같은 맥락 속에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게시글에 ‘몽돌이’가 작성한 댓글은 그래프, 사진,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한 것이다. ④ (나)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기자가 가문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수용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초록꿈’은 ㉠에서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할 나타내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사랑이’가 쓴 댓글의 의문문은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경호’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신’의 말에서 동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② ‘소희’가 포스터와 비교하며 새로 제작하는 동영상에서 슬로건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표현 전략을 비교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섬’이 이야기관 제작을 위해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며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S#4에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는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의 S#2는 소통에 관한 장면, S#3은 화합에 관한 장면이다. ② 소통에 관한 장면인 (나)의 S#2에는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대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화합에 관한 장면인 (나)의 S#3에는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학급별 소통할 제작’이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나)의 S#2와 ‘한마음 축제 개최’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S#3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자막이 나올 때 효과음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⑤ (나)의 S#2와 S#3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자막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S#5에서 자막의 내용을 힘주어 읽는 것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풀이]** ①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사용하면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다. ② 자막에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③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다. ④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을 자막으로 제시하면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